

잃어버린 位相

경기침체 여파로 인쇄업계는 요즘 고단한 나날을 보내고 있다. 일감은 줄고 생산비는 증가하고 자금압박은 심해지고 있으니 사기가 말이 아니다.

최근 어느 모임에서 세계 굴지의 외국 인쇄기계를 20년 가까이 국내에 공급해 온 K사장이 “우리나라 인쇄업계의 위상은 세계 최저 수준이다”라고 발언했다.

국제 정세에 빠른 K사장의 발언은 ‘어느 정도 사는 나라’를 염두에 두고 한 말이라고 추측은 되지만 엄연한 현실로 큰 거부감 없이 받아들여지는 표현이기도 하다.

K사장은 외국계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인쇄’라는 업종 때문에 고급 인력을 구하는데 애를 먹었으며 10여년간의 꾸준한 노력 끝에 겨우 해결할 수 있었다고 고충을 털어놓기도 했다. 우리사회는 청소년층의 높은 실업률이 큰 이슈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임에도 불구하고 인쇄업계는 기술인력의 부족상태를 빚고 있어 그야말로 ‘빈곤 속의 빈곤’이라는 이상한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인쇄업이 3D업종으로 인식되어 젊은이들이 아예 인쇄업계를 외면한다는 것이 가장 큰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얼마 전까지 인쇄단체에서 직업전문학교를 직접 운영하면서 훈련비를 지급하면서 훈련생들을 모집, 교육 시켰으나 지원자가 많지 않아 할 수 없이 교육을 중단한 안타까운 사례도 있었다.

또한 각종 인쇄교육기관에서 배출하는 인쇄관련 졸업생들도 인쇄현장보다는 화이트칼라 분야를 선호하는 것도 기술인력 부족현상을 부채질하고 있다.

최신 인쇄기계를 도입한 인쇄사에서 전문인력 부족으로 기계를 제대로 가동하지 못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며 부당한 인력스카웃의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기도 하다.

특히 업종 다양화를 위해 새로운 분야의 시설도입 계획을 세우고도 인력을 확보하지 못해 실천에 옮기지 못하고 있는 인쇄사도 있다.

그러면 선진국에서는 인쇄산업이 성장산업으로 자리를 차지하고 있고 인쇄관련인들의 위상도 상당한 수준인데 우리는 왜 그렇지 못한 것일까?

사실 따지고 보면 우리나라 인쇄 시설은 세계 최고 수준을 갖추고 있으며 용지, 잉크 등 인쇄관련 원부자재도 10여년 전에 비해 질적으로 크게 향상 되었다는데에 이의를 제기하는 인쇄인은 거의 없다. 또한 미국, 유럽, 일본 등 선진국에 고급 인쇄물을 수출하는 높은 기술수준도 유지하고 있다.

문제는 일차적으로 인쇄업계 안에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야 한다. 인쇄업종을 인쇄인 스스로 폄하하지 말아야 하며 패배주의에 빠져 부정적인 자세로 돌아서서도 안 된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인쇄인들이 품위 있는 생활태도를 습관화하는 일이다. 남에게 손가락질 받는 인쇄인이 많으면 많을수록 인쇄업계의 위상은 날개 없이 추락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젊은이들이여! 인쇄업종은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3D업종이 결코 아닙니다.



문제는 일차적으로 인쇄업계 안에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야 한다. 인쇄업종을 인쇄인 스스로 폄하하지 말아야 하며 패배주의에 빠져 부정적인 자세로 돌아서서도 안 된다. 그리고 무엇보다 인쇄인들이 품위 있는 생활태도를 습관화하는 일이다.